

박물관사람들

2019년 여름 · 66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정선, <창의문>, 『장동팔경첩』, 국립중앙박물관

2019년 여름 ■ 66호 Contents

기획/한양도성	육백년의 신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낙산 자락 사람들	4 8 12
문화칼럼	보배의 섬, 진도	16
답사기	신비에 이끌리어	20
박물관 탐방	겹겹이 쌓인 시간 - 국립김해박물관	23
회원마당	고맙습니다 로만틱 가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26 28
박물관 소식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32
숨은 전시	선비의 멋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9년 6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육백년의 신화

“중요는 조종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 것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는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조실록』 1394년 11월 3일



김정호 <수선전도>

2018년 10월 ‘한양도성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도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巡城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세 차례나 순성을 하였고 영조도 도성에 올랐답니다. 원래 순성이란 관리 책임이나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성을 둘러보는 것인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유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양 사람들은 하루해가 꼬박 걸리는 순성을 고대하고 고대하였다지요. 오늘날의 순성에는 600여 년의 시간이 동행합니다.

시간의 모자이크

『시경詩經』에 나오는 ‘建首善自京師始(으뜸가는 선을 세우는 서울에서 시작된다.)’에서 따온 ‘수선’은 서울을 뜻하기에 수선전도는 서울의 지도를 가리킵니다. 순우리말인 서울의 옛말 ‘서블’이 으뜸가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왕조에서 임금이 사는 도시인 왕도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인 수도요, 국가의 도읍지인 국도이기 때문이지요.

1395년 태조 이성계는 성곽 축성을 명합니다. 1396년 당시 서울 인구가 약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였는데, 전국의 백성 약 20만 명을 동원하여 단 98일 만에 5만 9500척에 달하는 성곽을 건설하였습니다. 세종 대의 수축은 농한기에 전국 8도에서 무려 32만 명의 양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숙종 때는 8년에 걸쳐 도성의 삼군영(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이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의 성곽은 땅에서 쭉쭉 자라난 듯 지형과 한 몸입니다. 산줄기를 따라서 오르고 내려오다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성벽에 딱 붙어 있다 멀찍이 떨어지기도 하는 순성길은 흙길이다가 계단이다가 도로에 막히면 멀리뛰기를 하여 다시 이어집니다. 높이 5~8m에 이르는 성곽은 각지거나 굽은 네모의 조합으로 얼핏 몬드리안이나 김환기 작가의 추상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크기와 형태, 색의 농담으로 성들의 ‘연식’을 가늠하며 돌



부형, 한양도성박물관

을 다루는 기술과 축성술의 시대적 변화를 배워갔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사이를 작은 돌로 메운 곳과 크고 매끈한 정방형 석재가 치밀하게 쌓인 곳들이 수백 년 나이차를 접어두고 사이 좋게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성문을 너무 오래 닫아 땀감이 끊어진 지 오래고...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으니... 문을 열도록 하소서.”
『연산군일기』 1504년 8월 1일

“5경 3점에 사대문이 열리니
말에 신고 수레로 운반하며 떼 지어 오네.
무수한 생선, 소금, 무수한 채소류
분분히 사러 좇아왔더니 벌써 다 팔리고 돌아가네.”
강이천(1768~1801) 『한경사漢京詞』

도성문은 도성 안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도로에 고립된 지금과 달리 닫으면 벽이고, 열면 길이었습니 다. 그 길을 따라서 전국의 물산이 모여들고 다시 흩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새벽마다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우마차 행렬이 수백 대였습니 다.



각자성석(흥인지문 맞은편)

어릴 적 노랫말에서는 남대문과 동대문이 12시가 되면 문을 닫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도성 문은 인정人定 종소리가 28번 울리면 닫히고(밤 10시), 파루罷漏 종소리가 33번 울리면 열렸습니다(새벽 4시). 28번은 28수宿 별자리에, 33번은 제석천이 이끄는 33천天에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두 쪽으로 나뉜 목제 표찰인 부험符驗 같은 도성 출입허가 증표를 맞추어 문을 여닫았습니다.

‘이돌’ 엘레지

성곽에서는 각자성석刻字成石(글자가 새겨진 성돌)이 300개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태조대에는 ‘천자문 자호’와 ‘소구간을 표시하는 숫자’, 세종대에는 ‘군·현’의 이름, 조선 후기에는 ‘공사 시기·담당 군영명·공사 책임자와 감독자’ 등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엄정하게 시행중인 ‘공사실명제’의 옛모습을 살펴다가 안이토리安二土리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목멱산 동쪽 기슭 각자에 석수로 등장한 그가 1711년 《승정원일기》에도 나옵니다. 광희문을 개축할 때 흥예석에 깔려 운명하였기에 쌀과 포묵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종대에는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4곳에 구료소救療所를 설치했지만 공사기간 중 872명이나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돌을 떠서 나르고, 쪼아서 모양을 만들고, 땅을 파고 다지며 도성을 쌓아 올린’ 이름 없는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1396년에 무사와 변영을 기원하며 백악과 오방신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축성제의 현장에서 우리말 ‘이돌(둘째 아들)’의 한자식 표기인 이토리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터와 무늬

흑백 기록사진에는 양옆으로 성벽이 연결된 승례문이나 코앞으로 전차가 지나가는 흥인지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확인케 하는 이미지에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오고 갑니다. 이후 전개된 도성의 훼손과 멸실이 세월의 풍화 때문만은 아닌 까닭이지요.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에 의해 승례문 좌우 성벽이 철거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정책에 의해, 해방 이후에는 도시개발의 명목 아래 도성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발굴과 복원작업은 현재진행형이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18,627km 가운데 약 13.3km가 보전되었습니다.

근래 도성에 근접하여 형성된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어갑니다. 달동네가 아닌 성곽마을이란 호칭은 낙후된 주거지에서 소중한 생활문화유산으로의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역사유적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생활의 터전으로 기억될 도성의 현재가 다채로워진다 싶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양도성은 능선을 따라 쌓은 ‘보이는’ 성곽을 말하지만, 넓게는 ‘성안’과 함께 성저십리城底十里(성 밖으로 대략 10리)를 포함한 한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과 밖의 삶을 구분 짓는 ‘보이지 않지만 보일 듯한’ 경계로도 작동했습니다. 20세기 초반을 배경으로 한 박완서의



성벽에서 바라본 승례문, 1904년

소설 「엄마의 말뚝」을 예로 삼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난 주인공의 엄마는 문밖(성 밖)에서 문안(성안)으로 이사를 하며 바라 마지않던 ‘말뚝’을 박게 됩니다. ‘문안’에 대한 열등감과 함께 ‘문밖’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만함을 지닌 인물이 막상 ‘안’에서는 ‘밖’을 그리워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서울이지만 도성이 가르는 안과 밖의 구별을 한 시절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도시와 시골을 나누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선명했던 시간들, 까다롭고 자기 이익만 밝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지방 사람들이 서울도박이를 부르던 용어가 따로 있던 시절 말입니다. 말이 품은 편견과 선입견은 털어내며 ‘서울깍쟁이’, ‘서울내기’를 써봅니다.

근현대시기 한양도성의 모습을 살펴보다 ‘인서울’이라는 다국적(?) 용어에 생각의 갈래가 닿았습니다. ‘인서울’의

시작점이 ‘성안(문안)’과 ‘성 밖(문밖)’의 나누기였나 싶은 뜬금없는 의심은 어쭙잖은 염려로도 이어집니다. 대학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커트라인의 의미를 넘어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위계를 방증하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순성을 마치고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역사와 함께한 하루를 정리해봅니다. 600년 넘게 한양에서 경성 그리고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로 급격한 변화를 견디어 온 한양도성. 몇 해 전부터 인류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알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성곽 문화유산들과 함께 대륙을 넘나들고 수천 년의 시간대를 오르내리는 역사여행의 한 거점으로 자리 잡겠지요. 깊어가는 어둠속에서도 한양도성의 신화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

문정원 회원

보이는 후의 보이지 않는 한양

땅거미가 진다. 인왕산 한양도성 불빛이 오늘도 빛난다. 카메라 렌즈를 당겨 잠시 멈추니 길게 누운 인왕산이 장엄하다. 문득 오래된 의자처럼 기억 속에서 닳아지고 있는 널따란 바위와 성돌을 만지고 싶어졌다.

집을 나서면 바로 한양도성 순성길이지만 개화기 역사의 현장인 서소문에서 돈의문 구간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김개남이 처형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서소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던 의궤의 현장이라는데 한 점의 얼룩도 품지 않은 ‘소의문’ 표지석만 외롭게 서 있다. 길 건너 배재학당 길로 들어서면 운동장 자리에 러시아대사관이 자리를 잡았다.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재개되고 옛 공사관 재산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곳 부지를 양도한 것이다. 신축 과정에서 이화여고 담장과 대사관 경계에서 도성 유적 50미터가 발견되었으나 외교 문제와 맞물려 유적은 땅에 묻히고 말았다. 대사관 담장 안에 갇혀버린 키 큰 회화나무가 600년이 넘는 시간을 굽어보고 있다. 대사관에 막힌 한양도성을 정동길을 한참 돌아 이화여고 노천극장 위에서 다시 그려본다. 평지의 도성은 안쪽으로 흙을 돋우었기 때문에 도성 안쪽이 바깥쪽보다 지대가 높게 형성되는데, 묻혀버린 유적 위 담장을 따라 원형극장 계단 위를 경계선으로 창덕여중 담장까지 곡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그려진다. 개화기 프랑스 공사관이 있던 창덕여중

의 뒷담에서 반갑게 만난 숙종대 반듯한 성돌은 아쉽게 바로 숨어버린다. 한성교회 막다른 골목에 짧은 흔적을 확인하며 왔다 갔다 되돌기를 반복하고 정동을 빠져나오면 탁 트인 새문안길이다. 언덕 위에는 나무로 만든 담장을 설치하고 ‘돈의문 터’라 표시하였다. 새문은 돈의문, 서대문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도성 축성 당시 사직동 고개에 세워졌으나 풍수를 이유로 세종 4년에 이 고갯마루에 새롭게 들어섰다. 돈의문은 일제강점기 전차궤도 복선화 사업으로 염덕기란 자에게 205원 헐값에 낙찰되어 슬프게 쓰러져 갔다.

이 서글픈 역사의 현장은 인왕산 능선이 끝나는 지점이면서 인왕산 길로 접어드는 초입이기도 했다. 돈의문에서 순성길을 찾아 오르면 왼쪽 강북삼성병원 사이에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자 반탁운동의 중심지 경교장이 김구 선생의 자취를 더듬게 한다. 고갯길 위에서는 월암공원과 만난다.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깜깜한 밤에도 밝은 빛이 나는 바위라서 월암(月巖)이라 했다.’는 멋진 바위가 세월의 무게를 지고 있는 이곳은 양명학의 대가 월암 이광려가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다. 메주처럼 생긴 태종대 성돌, 모서리를 다듬은 세종대 성돌, 정방형으로 다듬은 숙종대 성돌까지 그대로 드러나게 복원을 해서 상상에 지친 머리가 맑아진다. 등산로를 향해 가는 길목 다세대 빌라 주차장 안에 다시 성벽이 지난다.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가우똥해진다. 경사진 오르막 길에는 새롭게 복원된 성의 없는 성곽이 늘어서다 끊긴다. 길 아래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는 행촌동 권율 장군의 집터를 둘러본다. 표지석 뒤편에 이 은행나무가 맘에 들어 지었다던 낡은 딜쿠샤가 복원을 앞두고 불편하게 묶여 있다.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벽돌집은 3.1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광산 사업자이자 AP통신 특파원 알버트 테일러가 살던 곳이다.



월암동 각자



백운동천 각자



딜쿠샤



이화여고 노천극장



다시 길 위에서 성벽을 사이에 두고 성 안과 밖이 함께 만난다. 한양도성을 만끽하고 싶어 바깥 길을 걷는다. 얼마 안 가 성 밖 행촌동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만든 암문이 나온다. 암문을 지나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면 S자로 휘어진 바깥 성벽에 '봉산상'이란 각자가 보인다. 세종 4년 당시 황해도민들에게 지워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읽힌다. 아스팔트 도로를 통과하니 이제부터 제대로 산길이다.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의 성벽 위로 탁 트인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보인다. 성 밖 국사당과 선바위를 바라보며 정상을 향해 오른다. 안산 방향으로 능선이 길게 돌출된 지형이 곡장曲牆을 만들었다. 양 방향의 적을 방어하기 좋은 이 자리는 역시 군부대가 지키고 있다. 바람 부는 정상에 펼쳐진 서울 도심의 모습은 한양도성이 한눈에 그려지는 감격스러운 진풍경이다. 경복궁을 향해 펼쳐진 치마바위가 종종을 그리며 다홍치마를 널었던 단경왕후의 애뜻함 때문인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든다. 창의문 방향으로 내려오다 잠깐 성 밖으로 나가면 재밌는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태조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성돌의 변천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독립된 주체로 흥겹게 어울리는 모양새가 아름답다. 산길을 내려와 잠시 끊어진 성벽은 운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만나 창의문을 바라본다. 창의문은 사소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북서쪽의 문이다. 인조반정 때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온 것을 기려 영조 16년 성문을 보수하고, 2년 뒤 반정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현판을 문루에 걸었다. 풍수지리설에 창의문 밖 지형이 지네 모양이므로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 홍예 위에 천적인 닭과 닭은 봉황 조각을 새기고 천장에는 봉황 한 쌍을 그렸다.

한양도성 인왕 구간에서 내려다보는 청운동은 청풍계와 백운동이 합쳐진 지명이다. 이곳에 살았던 겸재 정선이 그린 『장동팔경첩』에서 〈백운동〉은 구름이 머무는 동네라는 이름에 걸맞게 깊은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바위가 아

름답다. 자하문 터널 위 울창한 숲에 조선 말 대신이자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의 집터와 선생이 쓴 '백운동천' 각자가 남아 있다. 폐허로 남겨진 귀한 땅은 침묵 중이다. 충절과 의리의 삶을 살다 간 김상용과 김상헌의 후손이 자리 잡은 청풍계와 청취각이 인왕산 물길 따라 이어진다. 청운초등학교 언덕 '백세청풍' 각자를 시작으로 유진 인재개발원 옆 계단 위 청운어린이집 뒤로 난 인왕산 자락을 산책하면 〈청풍계〉를 내려다볼 수 있다. 그림 속 그윽한 정취 대신 현대 재벌의 본거지가 보이지만 맑은 바람은 여전히 계속이다. 무엇보다 맑고 서늘한, 비온 뒤 맑은 햇살을 만날 수 있는 청취각을 찾아 폐가와 쓰레기 더미 옥인동 47번지 골목을 헤맨다. 이곳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역사 문화형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까지 십 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인왕산 동쪽 옷대에 남은 아늑한 자연 골목길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겸재의 스승 김창업이 물려받았다는 청취각의 그림 속 경치를 머릿속에 담고, 김창업의 호를 딴 가재우물을 찾는다. 집 모

퉁이에 창살로 묶인 샘 흔적이 보인다. 지도상에는 우물 옆으로 길이 있는데 막혀버렸다. 숨이 턱에 차게 골목길을 오르내리다 남산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자리, 청취각에 멎는다. 좁은 골짜기 사이로 내다보는 경치가 나무와 건물이 가로막아도 포근하게 품에 안긴다. 옥류천을 굽어보는 〈청취각〉의 독야청청한 품새가 떠오른다. 인왕산 골짜기의 물이 백운동으로 흘러 청풍계천을 지나고, 옥류천이 받아들여 청계천으로 흘러간다. 숲바꼭질 같던 인왕산 순성길을 필운대에서 마무리 짓는다. 〈필운대〉의 청정한 고갯길은 역시 겸재의 그림으로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 인왕산 감투바위를 거쳐 순성길로 갈 수 있었다는데 오늘은 백사이항복의 단정한 바위 글씨만 비를 맞고 있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는 김수근의 말이 떠오르는 길에 서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되새겨본다. 🍄

정은정 회원



정선, 〈청취각〉, 『장동팔경첩』, 국립중앙박물관



청취각 터



창의문



한양도성 인왕구간 성벽

낙산 자락 사람들



한양도성의 동쪽은 혜화문에서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낙산 구간이다. 산등성이 모양이 낙타 등을 닮았다 하여 낙산駝山 또는 낙타산駝山이라 했으며 근처에 궁중에 우유를 공급하던 유우소가 있어 타락산駝駝山이라고도 불렀다. 한양도성을 둘러싼 내사산 중 좌청룡에 해당하는 높이 125미터의 야트막한 산이다.

1398년(태조 7) 2월에 태조의 도성 공사가 완공되었으니 6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품었을 낙산 자락의 성곽을 따라가며 그 흔적들을 살펴보려 한다. 숙정문과 흥인지문 사이의 동소문東小門인 혜화문惠化門에서 출발해 보자. 처음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1483년(성종 4)에 새로 지은 창경궁의 동문에 홍화문이라는 이름이 붙자, 1511년(중종 6)부터 혜화문으로 바뀌 불렀다. 북문인 숙정문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혜화문은 양주, 포천 등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8년 문루를 철거하고 1939년에는 종로4가에서 창경원을 거쳐 돈암동까지 가는 전차를 놓으면서 석축까지 없애버렸다. 지금의 혜화문은 1994년에 복원되었지만 성벽도 없이 원래 자리가 아닌 언덕 위에 동그마니 서 있다. 소문의 흥예문 천장에는 광희문처럼 사조룡을 그려야 하지만 혜화문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다. 문밖의 삼선동, 동소문동, 동선동 지역 평야의 참새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큰길을 건너면 비로소 낙산의 성곽길이 시작된다. 나무 계단을 올라 만나는 성벽을 따라 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옛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태조, 세종, 숙종, 그리고 순조 때 쌓은 돌의 모양과 축성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영동시永同始라고 새긴 각자성석도 있다. 충북 영동현에서 온 백성들이 담당한 구간이 여기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세종 때의 흔적이다. 여기서 오르막길을 약간 오르면 왼쪽에 장수마을이 나타난다. 경사를 따라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정겨운 동네다. 행정구역으로는 성북구 삼선동인데 낙산 구간에는 이렇게 성벽 바로 밑까지 집이 들어선 곳이 많다. 삼선동, 동송동, 이화동, 창신동, 승인동 등. 옛날 말로는 ‘달동네’인데 지금은 ‘성곽마을’이라 불린다.

조금 더 가파라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암문暗門이 나온다. 뒤돌아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산의 문수봉, 보현봉, 형제봉부터 시작해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낙산의 정상인데 암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이번에는 남산, 인왕산, 북악산이 둘러싼 한양도성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높이와 전망이 파리 몽마르트(130미터)와 비슷하다 하여 ‘서울의 몽마르트’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낙산 정상에는 ‘낙산놀이마당’이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서면 ‘홍덕이밭’이 나오는데 홍덕이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봉림대군을 모시고 갔던 나인이다. 중국 심양에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봉림대군이 안쓰러웠던지 홍덕이가 채소를 길러 김치를 담가 드렸단다. 익숙한 고향의 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8년이 넘는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봉림대군은 효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홍덕이의 김치 맛을 잊지 못하여 낙산 중턱에 있는 이 채소밭을 주어 계속 김치를 담그게 했다고 한다. 오늘날이라면 ‘홍덕이 김치’라는 이름을 달고 홈쇼핑에서 절찬리에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이괄의 난으로 공산성까지 피난 갔을 때 먹었던 생선이 맛있었다 하여 ‘은어’라는 이름을 주었다가 한양으로 돌아온 뒤 맛이 없다며 “다시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했다는 아버지 인조보다는 아들이 나왔던 모양이다.



혜화문



혜화문 천장의 봉황



창신동 채석장

다시 성벽 쪽으로 올라와 밖으로 나오면 여기부터는 창신동이다. 꽤 높은 산등성이 근처에 단종의 비였던 정순왕후의 자취가 여러 곳 남아 있다. 정순왕후 송씨는 1454년 1월 15살의 나이로 1살 어린 단종과 결혼하는데 단종은 1455년 윤6월 상왕이 되었다가 1457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귀양을 떠난다. 그리고 1457년 12월 24일 17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다. 18살의 왕비는 평민이 되어 도성 밖 낙산기슭 정업원에서 시녀 3명과 눈물겹게 살아 가게 된다. 정업원이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창경궁 서쪽이었다는 설과 동대문 밖 동망봉東望峰 아래였다는 설



청룡사

이 있다. 동망봉 아래 청룡사 옆에 1771년(영조 47) 영조가 세운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순왕후는 낙산 자락에서 자지동천紫芝洞天의 샘물로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해 팔아 생계를 이으면서 매일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 지금 이곳에는 동망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이 동묘 근처의 '여인시장 터'이다. 여인시장은 부녀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금남의 채소시장이었는데, 시장의 아낙네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던 정순왕후에게 몰래 반찬거리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근처 청계천에는 '영도교永渡橋'라는 다리가 있는데, 다시는 못 건너올 다리라는 뜻이다. 단종이 귀양 갈 때 정순왕후와 마지막으로 이별하였다는 곳으로 영영 이별하는 다리라는 뜻의 '영리고永離橋'라고도 한다.

'강자에게 핍박 받는 죄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 살아남는 힘이 있다. 정순왕후 이야기 역시 그렇다. 공식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정순왕후 이야기가 계속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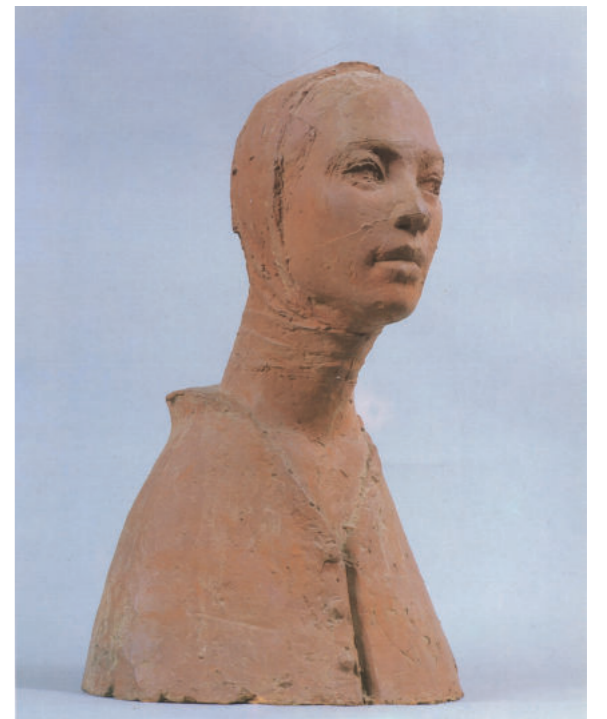
을 끌고, 영월뿐 아니라 종로구청에서도 '정순왕후 추모제'를 거행하니 말이다.

정순왕후와 헤어져 흥인지문興仁之門 가까이 오면 오늘날의 창신동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골목이 있다. 덕수궁 석조건, 조선은행,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파내던 채석장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절벽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골목은 서울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다. 한창 때는 3000여 곳에 이르는 작은 공장들이 몰려 있던 이 골목에서는 지금도 1000여 곳의 봉제공장에서 설 새 없이 옷을 만들어낸다. 길 건너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팔리는 옷들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똑딱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다. 1970년 11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한 후, 평화시장에 있던 봉제공장들이 이곳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 1970~80년대 섬유산업 수출을 이끌었던 산업역군들은 이제 50~60대가 되어 여전히 이 골목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는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 있고,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시다, 미싱사, 재단사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드르륵 드르륵 끊이지 않는 재봉틀 소리, 스팀다리미에서 설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가득한 골목에서 흥얼거렸다.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구름 숨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쓰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권진규 아틀리에



권진규, 지원의 얼굴

홍덕이, 정순왕후, 그리고 수많은 봉제노동자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낙산 자락 성곽마을을 떠나며 여기서 멀지 않은 동선동 골목길의 권진규 아틀리에에서 탄생한 테라코타 '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슬픔이 묻어나지만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 말이다. 🐾

김문숙 회원

보배의 섬, 진도^{珍島}



한반도의 서남단에 자리한 진도는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가는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놓이고 교통수단도 발달하여 진도를 찾아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과거에는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40여 년 전 이 섬에 가려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다. 해남에서 진도행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었는데 진도 앞바다에 이르면 커다란 나룻배가 버스를 실어 벽파항에 내려주고 그 버스는 진도 읍내까지 갔다. 이처럼 머나먼 땅이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진도군을 이렇게 소개한다.

진도는 동으로 해남현계^{海南縣界} 벽파진^{碧波津}까지 2천 7백리요 남으로 금갑도^{金甲島}까지 3천리며 서쪽으로 옛 남도포^{南桃浦}까지 47리요, 북으로 사읍곶^{沙邑串}까지 3천리인데 서울까지는 1천 20리이다. 해중^{海中}에 자리잡고 있으며 본래는 백제의 인진도군^{因珍島郡}이었는데 신라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무안군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백성들은 고기잡이나 소금 만들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다. 땅은 외져 있어도 풍속이 순하여 다스리기가 편하다.

물산이 넉넉하여 이렇게 기록했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 땅은 오랫동안 유배지로 이용되었고 또한 변란에 휩쓸리기 일쑤였다. 왕건은 곡창지대인 나주지방보다 이곳으로 먼저 쳐들어와 전쟁터로 만들었다. 고려말 삼별초의 난 때에도 이곳은 피로 얼룩졌으며 충정왕 2년(1350)경에는 왜구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 진도군수와 백성들을 영암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을 왜구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진도 관아는 해남의 삼산으로 옮겨갔다가 세종 19년(1437)에야 돌아왔으니 무려 87년 동안이나 진도는 주인을 잃고 있었다. 정유재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서해로 북상하려는 왜선을 울돌목에서 격파하고 호남의 바다길목을 사수했던 곳이다.

그런가 하면 고려 인종 때 반란을 일으킨 이자겸의 아들이 이곳에 유배되었고 정중부의 난 때는 의종의 태자가 귀양살이를 하였다. 조선조에도 광해군은 형님 임해군을 이곳에 귀양보냈고, 인조는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을 이곳으로 추방하였다. 근대에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의 장본인인 카쓰라를 중국 하얼빈에서 암살하려다 붙잡힌 선교사 손정도 선생이 1912년에서 1914년까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처럼 술한 고달픔을 겪어온 역사에서 진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새로운 것을 쉽게 따라가지 않는 보수성과 배타성을 익혔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지켜온 그네들의 땅덩어리는 오히려 오늘날 민속의 보물창고를 이루었고 비록 귀양은 왔으나 학식이 높았던 왕족이나 양반들의 숨결이 닿아 이름난 문장가, 예술가들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진도 유적의 순례는 해남의 우수영에서 그 서곡이 시작된다. 화원반도 끝자락 우수영 삼거리에서 우수영 마을과 울돌목으로 길이 갈리는데, 우수영 부근의 포구 언덕에는 '명량대첩비'가 있다. 이 비는 보물 503호로 높이 2.67m이며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었다. 충무공의 전승비는 남해의 노량, 고금도, 여수, 통영, 아산 등지에 세워졌으나 일제의 박해로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 비도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옮겨졌다가 광복 후 이 고장의 뜻 있는 분들에 의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명량대첩비각



금골산 오층석탑



금골산 마애불

명량대첩비를 지나면 진도의 입구인 진도대교에 이르는데 그 밑이 울돌목 전투로 유명한 명량해협이다. 이곳은 지금도 조류가 들고 날 때마다 바닷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조류에 휩쓸리면 큰 배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물살이 세다. 이 승전을 기념하는 비석이 진도의 벽파에도 서 있고, 녹진의 망금산에는 부녀들이 햇불을 들고 노래 부르며, 원무를 추었다는 강강술래터가 있다.

벽파 남쪽에는 용장산이 있는데 이곳에 삼별초의 발자취가 서린 용장산성이 남아 있다. 고려 원종때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여몽 연합군에 저항하기 위하여 장군 배중손은 쫓기고 흩어지는 삼별초군을 모아 강도(강화)를 떠난 뒤 두 달 열이레 만에 진도에 다다랐다. 그들은 한동안 육지 일부와 제주도를 차지하고 세력을 떨쳤으나 1271년 5월 김방경과 홍다구에 의해 진압되고 배중손도 전사하자 김통정이 잔병을 이끌고 제주도로 군영을 옮겼는데 두 해 뒤에는 그들마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용장산성은 둘레가 12킬로미터나 되고 성안에는 커다란 궁궐터까지 남아 있지만 삼별초군은 이곳에서 아홉 달밖에 머무르지 못했다. 이러한 고성인 진도에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진도의 서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남도석성이다. 남도석성은 해안방어를 하던 수군만호영이 있던 곳으로 조선 세종 때에 쌓았고 왜란 이후에 개축하였는데 성벽과 함께 동문, 서문, 남문이 남아 있고 축성법도 매우 짜임새 있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성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진도 읍내로 향하는 길목 북쪽에는 금골산이 있고 이 산 아래 초등학교에는 보물 529호로 지정된 금골산 5층석탑이 있다. 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예전에 절터였음이 분명하다. 금골산 5층석탑은 고려말기의 석탑으로 좁은 기단과 평박한 옥개석 그리고 초층 탑신을 길쭉하게 쌓은 모습이 특이하다. 탑을 지나 금골산 중턱에 오르면 넓은 바위그늘이 있고 그 암벽에 아주 솜씨가 좋은 고려시대 마애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금골산에서 진도읍으로 들어와서 다시 남쪽으로 8km쯤 내려가다 보면 길이 끝날 만한 곳에 윤림산방이 있다. 윤림산방은 조선시대 말기의 문인화가 소치 허련(1809~1892)이 살았던 집으로 쌍계사 옆에 자리잡고 있다. 허련은 젊었을 적에 해남 대흥사에 머물던 초의선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매섭기로는 한겨울의 서릿발 같은 김정희 선생으로부터 “압록강 동쪽에 너를 따를 자가 없도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실력이 대단하였다. 추사가 그에게 원말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황공망의 호 대치(大痴)를 염두에 두고 소치라는 호를 붙여준 데서도 알 수 있다.



용장산성 궁궐터

허련의 화풍은 그의 아들인 미산 허형과 손자인 남농 허건 그리고 의재 허백련을 통하여 가법으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들 허씨 집안의 유품과 서화가 1980년부터 복원된 윤림산방과 유품전시관에 간직되어 왔는데 지금은 목포의 향토문화관 자리로 이전되어 전시중이다. 🐾

소계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윤림산방

신비에 이끌리어



운주사 일주문을 지나 걷다보면 제일 먼저 높다랗게 하늘로 뻗어 있는 구층석탑을 만나게 된다. 바람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호위하는 천왕문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다. 여느 사찰과 달리 천왕문이 없이 바로 절 마당 같은 들이 펼쳐진다. 영귀산 계곡 따라 탑과 불상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양쪽 산등성이에 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가족처럼 오손도손 다정해 보이는 불상군, 어깨를 기대고 서 있는 부부 불상, 아이와 나란히 있는 부자 불상 등. 영거주춤 모습으로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불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다. 얼굴 모양은 평면적이고, 팔과 손은 균형이 잡히지 않아 어색하다. 몸통은 잘린 건지 제대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보살을 조각한 건지 중생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를 토속적이면서 투박한 형태의 불상들에게서, 제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만들고자 한 흔적들이 전해진다. 의도한 것 같기도 한 미완성의 모습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운주사 외형석조여래불

이 불상들 중에 온전한 불상이 하나 있다. 중앙 부분에 있는 ‘운주사 광배석불좌상’으로, 화염문양을 음각한 광배가 표현되어 있어, 이들 석불군 중에 유일하게 불상으로서의 가치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이한 형식의 불상도 있다. 중심부에 위치한 ‘운주사 석조불감’ 내부에는 불상 2구가 등을 맞대고 있는데, 등을 맞댄 쌍배불상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 골짜기 뒤쪽 산 공사바위 아래 바위 면에 새겨져 있는 ‘운주사 마애여래좌상’은 운주사에서 유일한 마애불이다. 운주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불상으로 여기는 부부 와불을 빼놓을 수 없다. 계곡 서쪽 산등성이에 커다란 불상 2구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운주사의 상징적인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운주사 외형석조여래불’이다. 전설에 따르면, 도선 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다 세우고 이 와불을 마지막으로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새벽닭이 울어 중단했다고 한다.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조각으로, 각각 12.7m와 10.3m나 되어 국내에 있는 석불 중 가장 크다. 왼편은 결가부좌한 모습의 좌불이고, 오른편은 다리를 나타내지 않아 입상불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을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석조불감

일으켜 세우면 세상이 바뀌고 천년 동안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는 전설이 전한다.

석탑들도 특이하다. 기단이나 탑신부에 기하학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탑들이 눈에 띈다. 탑의 모양도 정형을 벗어나 여러 가지다. 원반이나 항아리 모양의 돌을 쌓아 올린 구형탑, 원판형탑, 그리고 층수도 다양하다. 평면적인 옥개석이나 연꽃받침돌이 보이는 것은 고려시대 양식의 특징이다.

사찰 초입에서 맨 처음 마주하는 ‘운주사 구층석탑’의 탑신부에는 겹으로 새겨진 마름모꼴 문양 안에 꽃잎이 새겨져 있고, 지붕돌 밑면에는 사선이 새겨져 있다. 이런 문양은 운주사 탑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문양이다. 폭이 좁아 날렵해 보이는 이 탑은 유난히 수려하고 화려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탑이다. 중앙 부분에 있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원형석탑이다. 둥근 것은 원만하고 온전한 느낌을 준다. 둥글둥글한 원형석탑이 주는 편안함 때문일까. 중생들의 마음



운주사 석불군

을 다 보듬어 줄 것만 같아 마음이 쉬이 놓여진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대웅전 뒤편에 있는 ‘운주사 발형다층석탑’은 매우 독특한 모양의 탑이다. 주판알을 포개 놓은 형태이며, 발우 모양 같다고 하여 봉발탑이라 부르기도 하고 향아리탑이라고도 한다.

석재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채석장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납작한 돌을 따낸 자국과 구멍을 뚫어 돌을 쪼갰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부근의 암반이 켜켜로 떨어져 나오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운주사의 많은 불상과 탑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채석장 아래에 있는 칠성바위도 신기하다. 7개의 원반형 석재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놓여 있어 칠성바위라 부르는데, 민간 신앙인 칠성 신앙을 상징하는 북두칠성석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7층 원형석탑의 옥개석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또한 미스터리하다.

대웅전 뒤편 불사바위에 오르면 운주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계곡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들과 산에 탑과

불상이 산발적으로 널려 있고, 맨 뒤쪽으로 대웅전과 요사채, 종각 등의 당우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사찰이다. 미완의 모습으로 예사롭지 않게 서 있는 탑과 불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저마다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 보면 볼수록 신비로 가득한 이 골짜기의 내력을 살펴보니, 『동국여지승람』에는 석불 석탑이 각각 1천구씩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석탑 12기와 석불 70기만 남아 있다. 창건 설화를 보면, 도선 국사가 도술을 써서 하루 만에 세웠다는 설과 신라의 고승인 운주화상이 세웠다는 설, 중국 설화에 나오는 선녀인 마고할미가 세웠다는 설 등이 전해지나, 도선 국사가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쓰러질 듯 기울어져 보이는 탑들과 기하학 문양들, 모양도 제각각인 다층 다형의 탑들, 머리만 남거나 몸통만 있거나 하여 완성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미완성의 불상들, 미처 다 조성하지 못해 버려져 있는 석재들, 세우지 못한 와불 등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 헤매다 보면 저마다 신비를 가득 품고 다가온다. 이렇듯 특이한 천불천탑을 누가, 왜 조성했을까.

운주사에 가면 누구나 품게 되는 이 의문을 던져 본다. 신비를 가득 품은 운주사가 되려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인가.’

강현자 회원



운주사 광배석불좌상

겹겹이 쌓인 시간

국립김해박물관

오래 전 엄마는 마당 한구석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셨는데, 썩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고기의 뼈, 조개껍데기까지도 같이 버리셨다. 예를 들어 홍합탕이라도 끓인 날에는 홍합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내가 투덜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몇 천 년 후에 우리 집 터에서 패총이 발견되겠다고. 미래의 학자들이 여기가 바닷가였다고 오해할 거라고. 현재 그 집은 헐려서 그 자리엔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먼 훗날 엄마의 패총이 발굴될 여지는 사라졌다.

국립김해박물관 2층 한쪽 벽면이 굴겹질로 가득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거무튀튀한 흙에 굴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조개 껍질들이 뒤섞여 있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의 단면이다. 조개무지, 조개무덤, 조개더미, 패총 등으로 부르는 이름만 듣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 그동안 명칭 때문에



새 모양 장식 미늘쇠

그 규모를 상당히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에선 조개와 뼈뿐만 아니라 토기조각, 골각기, 철기, 석기, 가락바퀴, 유리대추옥, 탄화미 덩이 등 갖가지 물건들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 조개더미는 원삼국시대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이다. 또 왕망이 전한前漢을 멸망시키고 세운 신新 나라의 동전인 화천貨泉 한 닢도 나왔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자면 쓰레기 버리다가 달려나 유로화를 실수로 같이 버린 셈일까?

박물관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회현리 조개더미 유적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성동고분군, 구산동고분군, 봉황동유적, 수로왕릉과 왕비릉 등도 가까운 곳에 있으며 박물관 뒷산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구지가의 무대인 구지봉이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서 유적지들을 둘러보기도 편리한 위치다. 고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훨씬 높아서 박물관 남쪽에 있는 김해평야는 바닷물에 잠



회현리 조개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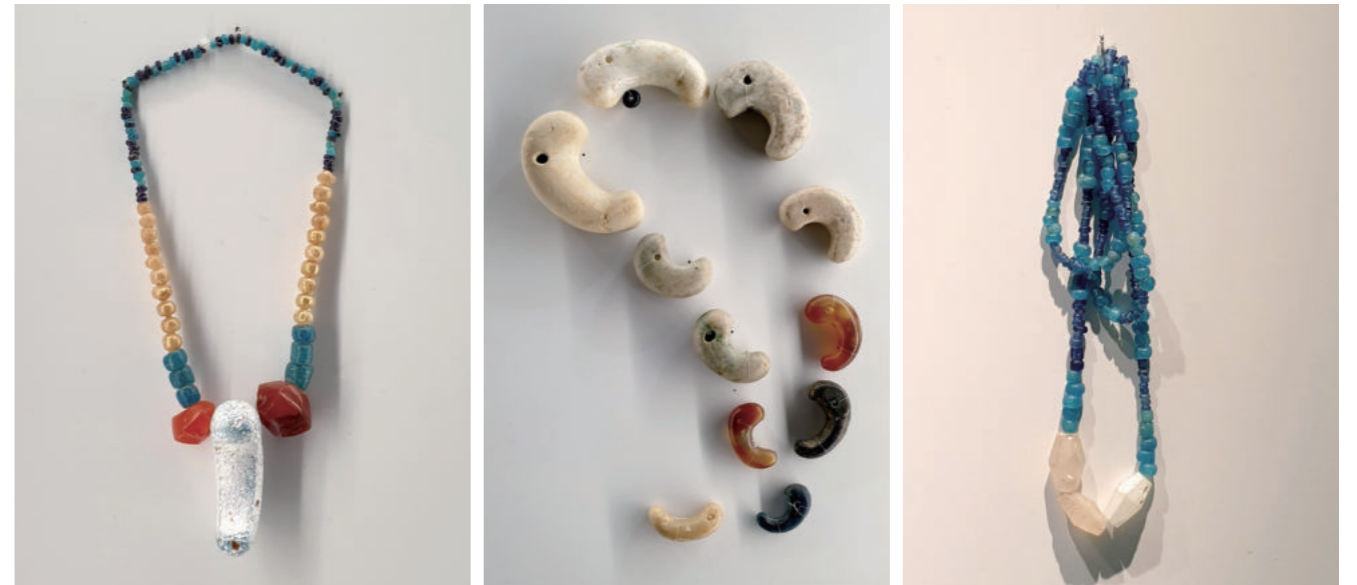
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바닷가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이 부근에 조개더미가 있다. 또한 배를 띄우기도 좋은 곳이었다. 고대 항구 유적인 봉황동유적에서 출토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배 파편을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유적이 많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모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증거일 텐데, 지금도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인지 대성동고분군 능선 위에 올라서면 대형 슈퍼마켓과 아파트와 집들이 즐비하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역사박물관 관람은 대체로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 투박한 돌도끼로 시작해서 날카롭게 갈아 만든 돌 화살촉을 보고 토기가 나올 때쯤 되면 살짝 지겨워질 수도 있다. 토기는 편년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유물이지만,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들다. 게다가 여기는 가야 유물들이 모여 있는 김해박물관. 토기라고 하면 어디에 내놔도 꿩리지 않을 가야토기를 다량 보유한 곳이 아닌가! 전시실에 토기가 가득하다. 여기서 정신을 놓아버리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다. 예쁜 문양에 반질반질 단단해 보이는 토기가 눈에 들어오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일 것이다. 설명을 읽어보면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대충 구분해보기도 하고, 투창이 화염모양인 굽다리접시는 아라가야의 가마에서 구운 것이라는 사실 등도 알게 된다.

역사 속에서 가야는 철기 생산지로서도 유명하다. 안타깝게도 남아 있는 문헌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 힘들지만 유물들만 봐도 철의 왕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내수용 철기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왜와 낙랑 등에 수출할 정도였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국력도 상당했을 것 같다. 사실 쇠로 된 유물들은 붉은 녹이 잔뜩 슬어서 멋지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철기 유물을 잘 보려면 상상의 필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녹슨 쇠덩어리인 철정鐵錠이 매끈한 쇠덩어리던 그 시절에는 금피나 은피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소중한 재산이었다. 또 번쩍번쩍 빛나는 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역시



말 탄 사람 모양 뿔잔 국립경주박물관



목걸이, 굽은 옥

쇠 갑옷을 입힌 말 위에 탄 가야의 장수는 얼마나 우쭐했는지? 국보 275호 말 탄 사람 모양 뿔잔에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그중에 상상 속에서 녹을 제거하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오는 철기가 있다. 새 모양 장식 미늘쇠, 녹슨 상태 그대로도 멋있고 한편으로는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내 미늘쇠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보병이 기마병을 저지하는 도구라는 설과 제례용 의기라는 설 등이 있는데 결국 잘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고 예쁘게 새 모양을 장식했는데 적에게 휘두르기에 너무 아까운 물건이라 그쪽 용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다.

관람 후반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목걸이들이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 아니라 목걸이의 왕국 아니었을까?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김해, 거제, 함

안, 밀양, 합천, 진주 등 각지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와 굽은 옥들을 모아 놓은 곳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면서 셔터를 누른다. 금과 은 대신에 벽옥, 수정, 마노 같은 옥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금은 장신구가 없이 문혔어도 충분히 후하게 장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가야의 흔적은 무덤 속이나 조개더미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의 조개더미인 쓰레기 매립장은 어떤가?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뒀을까? 먼 미래의 박물관에 지금은 하늘공원이 된 난지도 매립장의 단면이 전시된 것을 상상해본다. 그 쓰레기들을 보며 그들은 우리의 문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까? 행여나 그들이 산업폐기물이나 핵폐기물을 파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서유미 회원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사연으로 그토록 귀한 유물들을 아낌 없이 기증했을까, 그 값이 얼마인데, 속물스러운 궁금중으로 기증관을 기웃거렸습니까. 진열된 전시물 중 동원 이홍근 기증관에 다소곳이 놓여 있는 자그마한 백자의 훈훈한 매력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와 보물도 많지만 저는 작은 생활 소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백자 산 모양 향꽃이는 이름 그대로 백자이고, 접시 받침 위에 산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접시 바닥의 지름이 약 8cm쯤 되니 요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커피잔의 접시와 비슷합니다.

산 중앙에는 구멍을 내어 향을 꽃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산 아래에는 작은 집이 있는데 반룡 한 마리가 산과 집을 감싸안고 지켜 주려는 듯 휘감고 있습니다. 반룡 주변에는 구름무늬가 양각되어 있어 신령스러운 기운이 맴도는 듯합니다.

반룡이란 뜻을 찾아보니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리어 있는 용이라는군요. 반룡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의 모습이 아니고 뱀의 얼굴입니다.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아닐까요? 이무기가 승천하면 용이 된다는 옛이야기가 있잖아요.

산 정상 부분에서 접시 밑바닥까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공기가 잘 통하여 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잘 피어오르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접시 바닥을 오목하게 깎은 것입니다. 공기의



백자 찻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흐름이 더 좋아졌겠지요. 굽은 낮은 편입니다. 바닥 안쪽을 깎았으니 굽을 높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굽을 높였다면 전체적인 조형미가 깨졌겠지요.

백자는 전체적으로 청초한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이며 집의 지붕, 오목하게 패인 홈, 문양 등 유약이 고인 부분은 좀더 짙은 푸른색을 띵니다. 운무가 낀 듯 아스라이 푸른 빛이 감도니 반룡과 함께 신비로움이 더해져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향꽃이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크거나 모양새로 보아 제사나 의식에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크기가 좀 더 큰 향로가 있으니까요. 혹시 요즘 우리도 쓰고 있는 향꽃이처럼 아로마 테라피나 실내 정화용으로 쓰이지는 않았을까요?

백자 산 모양 향꽃이 옆에 전시되어 있는 단아한 모습의 백자 찻주전자 또한 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향꽃이와 세트였을까요? 청백색으로 맑은 푸른빛을 띵는 게 거의 향꽃이의 빛깔과 같습니다. 뚜껑에는 향꽃이와 마찬가지로 반룡이 장식되어 손잡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반룡 머리 뒤로 실금이 보입니다. 가끔 하는 실수처럼 뚜껑을 떨어뜨려 금이 간 걸까요?

백자 산 모양 향꽃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체적으로 감도는 푸른빛 때문인지 반룡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승천하지 못한 한을 삭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찻주전자 입구는 안쪽으로 얇은 턱을 두어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뚜껑의 한쪽이 약간 들려 있어 뚜껑을 덮었을 때 딱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운기가 나도록 매끄러운 몸통은 팽팽하게 부풀어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피부 고운 미인이 연상됩니다. 영락없는 나팔 모양의 손잡이는 단조로움을 깨고 경쾌한 재미를 더해 이채롭습니다.

선조들은 백자 산 모양 향꽃이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자 찻주전자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하였나 봅니다.

기증관에는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들게 모은 유물들을 아낌 없이 기증해준 기증자들 덕분에 볼 수 있게 된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사재를 털어 유물들을 수집하고 지켜준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손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기증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조미숙 회원



로만틱 가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작은 2017년 「드레스덴박물관 명품전」 전시로부터였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화려한 예술품에 매료되어 그 감상을 적은 여운이 남아 있었을까? 삼총사가 독일여행을 계획하면서 로만틱 가도로 방향이 정해지자, 그 출발점이 드레스덴이란다. ‘엘베강의 피렌체’ 그리도 극찬한 예술의 도시. 나도 모르는 인연의 끈이 연결돼 있나 하는 생각에 묘한 미소가 지어졌다. 로만틱은 낭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교역로를 만든 데서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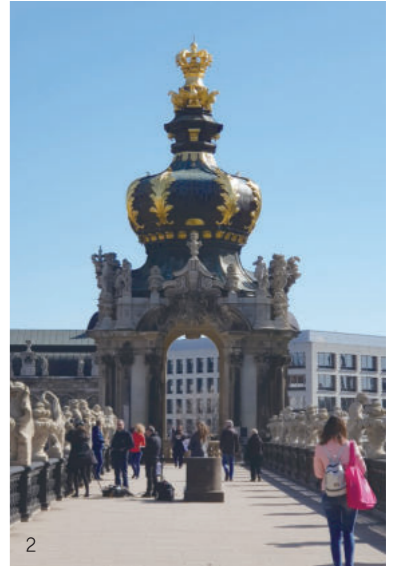
드레스덴 구시가지 넓은 광장에 첫발을 디딘 소회는 요즘 유행하는 타임리프 드라마의 도입부 장면 그대로다. 돔을 이고 있는 교회, 열주가 늘어선 긴 회랑, 시계탑 위에 첨탑, 말을 타고 있는 동상 등 나는 역사 속 한 장소에 불쑥 뛰어든 한가로이 지나가는 행인 1, 2, 3이 된다.

베르사이유를 탐하며 지은 여름 궁전 츠빙거궁은 아우구스투스 2세 통치기에 드레스덴의 예술과 문화를 총망라한 바로크 양식의 꽃이라 불리운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뢰펠만과 조각가 페르모저의 합작으로 1732년 완성되었다. 1847년에는 쟈퍼가 북동쪽 윙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회화갤러리를 증축하였다. 또한 궁 옆으로는 신바로크 양식에 그리스 신화를 차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쟈퍼 오페라하우스를 화려하게 지었다.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전쟁으로 파손과 보수가 반복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중전

직전 영국과 미국 공군의 불폭풍 공습으로 완전 파괴되었다. 1963년 동독 시절부터 복구를 시작하여 현재의 바로크 걸작을 재현한 것이다.

정문 크로네토어(왕관의 문)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분수가 있는 사각형 안뜰 맞은편의 북쪽회랑 역시 좌우대칭이다. 크로네토어는 바로크 양식의 네 기둥이 거대한 금장식 왕관을 떠받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 왕이 작센 선제후이자 폴란드 왕으로 즉위한 기념으로 폴란드식 왕관을 올렸다.

크로네토어 1층에 아우구스투스 왕의 도자기 컬렉션과 마이센 자기를 전시한 도자기박물관이 있다. 나의 관심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때 보았던 <일본 궁전의 마이센 카리옹>이다. 대작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 들어서자 유리창으로 막혀 있는 그 카리옹이 눈에 들어온다. 드레스덴에서는 <일본 궁전의 도자기 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역시 뢰펠만이 디자인하고 요한 캔들러가 조각한 라임나무 케이스 안에 51개의 마이센 종이 매달려 있고 오르간 제작자 요한 해넬이 완성하였다. 왕을 위한 당대 최고 명인들의 콜라보 걸작이다. 서울에 출장 왔던 그 오르간을 본가에서 직접 보다니 몹시 흥분되었다. 거대하지 않으나 육중하고, 나무 조각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얀 도자기들은 얇아 놓은 접시 모양을 하고 반짝인다. 아쉽게도 건반 뚜껑이 덮여 있어 소리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 전시 때 들었던 헨델의 불안정한 울림은 싹 다 잊히고 내 마음대로 청아하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제야 다



- 1 츠빙거궁
- 2 크로네토어
- 3 일본 궁전의 도자기 중
- 4 강희제 재위 청분 도자기 컬렉션
- 5 마이센 골목
- 6 쟈퍼 오페라하우스





로텐부르크



성야곱 교회

른 관람객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유리장 안에 고이 모셔진 카리옹이 또 다른 여행을 기대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다음날 마이센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오르간을 보았다. 48~112cm로 길이가 서로 다른 22개의 도자기 파이프를 장착한 아름다운 플루트 소리를 내는 오르간이다. 모습은 날렵하면서 뒷판도 손잡이도 건반도 모두 도자기로 장식하여 예쁘고 우아하다. 도자기와 오르간의 환상조합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로만틱 가도의 하이라이트 로텐부르크(옴 데어 타우버)는 9세기에 요새마을로 시작하여 제국의 성곽도시로 확장 건설되었다. 도시 전체가 42개의 탑과 마우어링(방어 성벽)으로 연결되었고 좁게 난 성벽길 위에는 지붕이 덮여 옛 병사들은 눈비에든 불핀 없이 보초를 섰겠지 상상해 본다. 성벽 안으로 들어서면 중세의 도시가 고스란히 펼쳐진다. 동화책에 나오는 색색의 목조건물들, 우뚝 선 시계탑, 상점 위에 매달린 모형 간판들, 동그란 돌들이 깔린 골목골목들, 모든 장면이 순수하고 따뜻하다. 독일 내에서도 크리스마스 축제, 부활절 축제로 유명한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도시이다. 이 자유도시 역시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구시가지가 파괴되고 건물들 40% 이상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지와 각국의 후원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마우어링 위를 걷다 보면 전 세계로부터 답지한 후원자의 이름과 기관명이 벽을 따라서 길게 새겨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이름과 지명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의 이름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니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지분이 새삼 대단함을 느낀다.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로텐부르크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가 보다.


시청사 뒤쪽 좁은 골목을 지나면 고딕 양식의 성야곱 교회가 나온다. 장대와 조개껍데기를 들고 있는 순례자 산티아고의 동상이 앞에 서 있다. 맨 앞 12사도제단은 핏자국도 선명한 십자가에 박힌 예수와 네 명의 금박 입힌 천사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아래쪽 좌우의 그림들 중에는 사도 야곱의 전설도 그려져 있다. 제단 뒤로는 17미터나 되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세 면을 높이 장식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성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화려하고 어두운 반면, 독일 교회들은 높고 실내가 밝아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 성야곱 교회의 자량은 2층의 거룩한 피의 제단이다. 뷔르츠부르크의 유명한 조각가 리멘슈나이더의 걸작이다.

두 천사가 받치고 있는 금박 십자가의 크리스탈 캡슐 안에 예수의 성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운데 최후의 만찬 조각상은 나무인데도 각각의 인물묘사가 표정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예수가 유다에게 배신의 징표인 빵조각을 주고 있고 요한은 예수의 품에 기대 있다. 유다를 외면하는 제자의 표정은 너무도 차갑다. 제단 맞은편에는 1968년에 새로이 봉헌된 파이프가 5천여 개나 되는 거대한 오르간이 자리 잡고 있다.

일요일이었지만 몇몇 관광객과 예배 중인 몇 명뿐이었다. 각양각색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올려다보며 둘러보던 중 노래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예배석 가운데 어느 중년의 부부가 노래하고 있었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 서로 마주보며 그 울림이 너무 놀랍도록 아름다워서 박수가 절로 나왔다. 두 명의 화음이 천사의 노래인 듯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예언자 엘리야가 천국에서 마중 나온 불꽃전차를 타고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갔다는 구약성서 이야기를 노래로 한 흑인영가였다. 나도 같이 흥얼거리면서 아주 잠깐 천국에 다녀온 기분이 들었다. 노천 카페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도 지나가는 이의 미소도 축복처럼 느껴졌다.

로만틱 가도의 여정은 드레스덴을 시작으로 밤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로텐부르크, 메칭엔, 튀빙겐, 프라이부르크를 거쳐 하이델부르크에서 마무리되었다. 대학도시의 자유도 만끽하고 고색창연한 고성 숨결도 느껴보고 그림 같은 풍경도 실컷 보고, 독일의 현재는 다채롭고 친절하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미래의 청사진도 그려보았다. 그러나 이를 만에 불바다가 된 드레스덴이나 폭격을 맞은 로텐부르크나 인간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 새롭게 가꿀 앞으로의 세상도 기대되지만 지켜내야 하는 문화유산의 끊임없는 보수와 복원도 우리들의 숙제이다. 독일 여러 도시를 돌면서 검은 옛 건물들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 했으나 불에 그을린 궁전 조각상이나 검게 그을린 교회 외벽을 그대로 둔 채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겠다는 독일인의 마음이 충분히 압혀진다.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였다. 시테섬 산책길에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안개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발길을 떼지 못한 채 2시간 이상 대성당의 화재를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수백 년을 가꿔온 문화유산이 또 허무하게 소실되고 있었다. 남대문 화재 때와 같이 파리 시민들 역시 손도 못 쓰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다니. 언제쯤 원래 모습을 보게 될까, 다시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여기도 저기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유지 보수 공사 중이다.  **최예정** 회원



거룩한 피의 제단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THE ETRUSCANS-RISING TO ROME



함께 여행을 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카노푸스 단지,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특별전은 지중해의 가려진 보물, 에트루리아 문명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과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7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에트루리아인은 고대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이어주는 에트루리아 문명을 통해 서양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누렸던 에트루리아 사람들의 진면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나침반 선추, 조선실

선비의 멋

한나라 때 태어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누각산수문, 십장생문, 초문 등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목각 집과 함께
조선시대 선비들의 부채 고리에 달려
실용적 장식품으로 사랑을 받던 나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왜 몰랐을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善正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주작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尹光子 회원

천마회원

南秀淨 (주)썬앳푸드 사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태양그룹 회장
 尹章燮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尹在倫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趙顯相 효성 총괄사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洪政旭 헤럴드·올가니카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圓 극락사 주지
 權俊一,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주) 회장
 金承謙 서릉지구(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산업가스 사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禎原 두산메가텍(주) 부회장
 裴東眩 창성그룹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李圭植 경신금속(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李堯昊 MashupAngels 대표
 全裁範 금강공업(주) 사장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주)한섬
 崔杜準 (주)동남유화 회장
 최철원 MIGHT&MAIN(주) 사장
 許允秀 (주)ALTO·(주)ALTEK 사장
 許允烘 GS건설 부사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寧明 (제)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柳智勳 (주)한탑 사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부사장
 朴英柱 아성다이소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彌鎬 광성기업(주) 대표
 宋秉峻 (주)게임빌·(주)킴투스 대표이사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辛炳讚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禹燦奎 학교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사장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林鍾勳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張善叢 (주)교원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崔正勳 이도 대표이사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계련(주) 이사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계련(주) 부사장
 具瑗姬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權志德 아이에스동서 전무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建昊 삼양사 상무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大煥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旼洙 삼익악기 사장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주)해남 대표이사
 金侖壽 지리산 문화관 관장
 金恩惠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益煥 한세실업(주) 대표
 金仁順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金宗學 서양화가
 金知爰 한세엔케이 전무
 金志泰 태아산업(주) 부사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賢銓 히든베이호텔 사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柳重熙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문윤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閔俊棋 라인타셔날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朴璟鎭 진주협 대표이사 부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朴世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漢正 V&S자산운용 부장

朴載相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주)신원 부회장
 朴廷彬 재미교포
 朴正遠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俊泳 TV조선 전무
 朴海春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方正梧 (주)동성코퍼레이션 전무
 裴允植 회원
 白晉宇 대한광통신 사장
 徐東姪 (주)경동홀딩스 상무
 薛允碩 아름지기 이사장
 孫元洛 법무법인 세종 대표
 申硯均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辛永茂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愼昌宰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沈宗玄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楊仁集 골드만삭스 상무
 梁汰會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魚湖善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吳勝敏 인성산업(주) 전무
 吳治勳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東鉉 유급와당박물관 기획실장
 俞承熹 BlueRun Ventures 대표
 柳英芝 호림박물관 이사
 尹 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普鉉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尹勝鉉 삼일회계법인 전무
 尹楨善 열화당 대표
 李甲宰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圭鎬 삼표산업
 李起雄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萬圭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美淑 삼보모터스 프라코 상무
 李常宰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李善眞 한국미술협회 회원
 李秀卿 (주)경농 부사장
 李承勇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李英純 OCI 사장
 李鈺子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容濬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李宇成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宇鉉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雲卿 동아해운 부사장
 李胤基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仁洙 KKR Asia Limited 대표
 李宰旭 TCK Investments 상무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永采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田潤洙 블룸앤코 대표
 丁恩美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義宣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현대무백스 전무
 鄭志伊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경동소재 대표이사
 曹榮美 (주)가온소사이터 대표
 曹在顯 하나유비에스 대표
 趙希卿 천일식품(주) 대표
 陳在旭 (주)카카오 CFO
 千碩圭 회원
 崔世勳 SK(주) 부회장
 崔善默 (주)이노비온 대표
 崔仁善 회원
 崔再源 SK(주)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韓碩炫 프로듀서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辰秀 SPC(주) 부사장
 玄明官 (주)화승R&A 부회장
 玄智皓 호성흥업 회장
 胡鍾一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昌成 남양유업(주) 부장
 洪範碩 고려제강 상무
 洪碩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誠杓 회원
 洪元福,金根鎬 (주)BGF리테일 부사장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禎寅 중앙홀딩스/JTBC, 전략담당팀장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振碩 남양유업(주) 상무
 黃仁奎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 2019. 5.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